

도심 열섬현상·미세먼지 완화... 녹색공간도 확충

서초구, SCL그룹과 여의천 일대 나무 9000그루 식재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SCL그룹과 손잡고 여의천 일대에 9000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에 힘을 쏟고 있다.

구와 SCL그룹은 2022년부터 여의천 일대에서 나무심기 활동을 이어왔다. 2024년에는 탄소흡수원인 나무를 후원하는 정식 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환경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사회공헌과 지역 환경정책을 연계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SCL그룹의 후원을 통해 여의천 일대에는 빛나무와 조팝나무 등 9000그루 이상의 식물이 식재됐다. 수목 식재를 통해 도심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줄이고 하천변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충

하는 데도 힘을 보탤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수목 후원을 넘어 지역 청소년과 주민이 직접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역 초·중학교 학생과 주민들은 여의천에서 직접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등 식재와 사후 관리에 참여했다.

구는 이러한 참여 과정이 미래 세대의 주민들에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과 사회공헌 자원과 구의 환경정책, 지역사회와 참여를 하는 사업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민간협력 모델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구와 SCL그룹의 지역사회 협력은 환경 분야에 앞서 의료 나눔에서 시작했다. SCL그룹은 2022년부

터 2024년까지 매년 지역에 취약계층 30여명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했다.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는 사회공헌으로 시작된 협력이 이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ESG 활동으로 영역을 넓힌 것이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가 이어지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과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민간기업이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탄소흡수량과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의 실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ESG 경영 성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구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여의천 나무심기 사업을 민선 9기 핵심 구정방향인 '녹색복지도시'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추석 맞이 대청소

에서 추석맞이 사당4동 주민대청소가 진행됐다. 사진은 류상영 구청장이 주민들과 빗물받이 담배공초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

11월부터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서산시, 내달 26일까지 신청 접수

충남 서산시는 '2026년 하반기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이 농가를 직접 찾아가 부산물 파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쇄 작업은 오는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순차 진행되며, 파쇄 대상은 고춧대, 찻대, 콩대, 파수 잔가지 등이다.

비닐 등 곡류분류는 파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0월2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되며, 추가 접수는 불가해 기간내 접수해야 한다.

서산=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내달 어린이집에 공기관기 설치

(15곳) 서대문구, 1년간 공기질 측정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박운기)는 구립어린이집 최대 15곳에 공기질 측정기를 설치하고 1년간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를 검증한다.

공기질측정기는 번지를 걸러내는 공기청정 기능과 함께 공기 중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줄이는 장비다.

구는 전체 구립어린이집 60곳 가운데 수요와 시설 환경을 확인해 시범 대상을 선정할 뒤 다음 달부터 장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설치 전후 보육공간의 공기질과 유해물질 변화율은 오는 2027년 9월까지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시설별 환경을 반영해 효과와 활용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추석 연휴 비봉~매송 통행료 면제

(도시고속도로)

화성시, 전광판에 교통정보 제공

경기 화성시가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해당 기간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별도 신청 없이 요금소를 무료로 통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맞춰 추진되며, 명절 기간 귀성·귀경객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주요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는

화성시 서남부 지역과 동부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명절 때마다 대규모 귀성·귀경 이동 차량이 대거 집중되는 구간이다.

이에 시는 연휴기간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 전광표지판(VMS) 등을 적극 활용해 실시간 교통 상황과 우회 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차질 없는 특별교통대책을 연계 추진할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교통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화성=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남양주시, 24~27일 공영주차장 46곳 개방

경기 남양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지역내 유료 공영주차장 46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무료 개방은 추석 연휴 동안 도심과 주요 시설 주변의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해 마련됐다.

무료 개방 기간에는 해당 공영주차장의 차단기를 열어 별도의 요금 징수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후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80곳도 평소와 동일하게 개방된다.

무료 개방은 오는 27일까지며, 28일부터는 평소와 같이 유료로 운영된다.

현재 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총 126곳이다.

시는 남양주도시공사와 함께 연휴 전 시설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이들이 집중되는 주차장을 중심으로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민들이 주차 부담을 덜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말했다.

이후 "많은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잠시나 주차를 자제하고 주차 질서를 지키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위치와 운영 정보는 남양주시 통합 주차서비스 원패스 앱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최광대 기자 ckd@siminilbo.co.kr

인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내달 8일까지 취약지역 점검·기술 지원

인천 미추홀구는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학익유수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계도·홍보 ▲순찰·상황실 운영 ▲기술지원 등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계도·홍보와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31곳에 사전 예방 및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배출업소 현지점검을 통해 방지시설 가동 여부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2단계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환경오염사업자 및 발생 시설을 순회 점검할 수 있도록 상황실과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학익유수지 등 취약지역을 순찰하며 오염물질 유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3단계는 연휴 이후인 오는 28일부터 10월8일까지 진행된다.

환경권 취약·영세업체를 대상으로 감시·감시 기능을 중단했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용산구, 반지하 밀집 골목길에 'IoT 침수경보시스템'

(속보)

측정 수위 도달면 사이렌·음성방송 자동 작동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전국 최초로 반지하 골목길에 침수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에 나섰다.

구는 올해 초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저지대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6곳을 선정해 해당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운영에 들어가 지난 8월까지 시범운영을 마쳤다.

기존에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담당자가 현장을 순찰하거나 주민

신고로 통해 침수 여부를 확인한 뒤 대응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저지대 반지하 주택에 침수될 경우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주민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구축한 IoT 레이더 시스템은 도로 수위를 1분 단위로 자동 측정해 서버로 전송한다. 담당자는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수위 변화와 침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측정 수위가 단계별 침수 위험

기준에 도달하면 현장에 설치된 사이렌과 음성방송이 자동으로 작동한다. 구는 수위에 따라 ▲수위 5cm ▲경보 10cm ▲심각 15cm 등 3단계로 구분해 주민에게 위험 상황과 대피 방법을 즉시 알린다.

동행파트너와 돌봄공무원 등에게도 문자로 상황을 전파해 현장 확인과 주민 대피를 지원하도록 했다.

구는 이를 통해 기존 '관측 중심'의 사후 대응체계를 '감지·전파·대피' 중심의 선제적 대응체제로 전환했다. 집중호우 때 침수 위험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주민에게 즉시 알려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어린이보호구역 3곳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강동구,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

157곳 확대보도 신설·정비도

명동초등학교와 어린이집 2곳 주변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4대가 준비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어린이 교통안전의 보행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의 단속 장비를 확충하고 주요 통행로의 횡단보도 시인성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무인단속카메라는 명동초등학교 교에 2대를 설치했으며 천호3동어린이집과 늘해랑어린이집 주변에도 각각 1대를 마련했다.

늘해랑어린이집 주변에는 한 대로 일방통행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도입됐다. 정방향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과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해 단속 효율을 높이고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신규 카메라는 정기·통신 사용 신청과 인수검사를 마친 뒤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운영한다.

보행자의 횡단보도 이용 환경도 개선했다. 구는 보호구역과 주요 통행로 157곳에 환주요형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정비했다.

환주요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양옆 바닥에 발광형 도로표지판을 매입한 시설이다. 야간이나 비가 내릴 때나 운전자가 횡단보도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감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동대문구 대표 휴양시설! 청풍명월의 자연이 어우러진 청풍유스호스텔에서 힐링 어떠세요?

● 소 재 지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139

● 예약 방법

- ① 개 인 : 인터넷(www.chpungyh.co.kr.) 예약
- ② 단 체(30명 이상) : 전화☎ 043 - 652 - 9090) 예약

● 객실 안내 : 4인실 (거실겸 방 + 욕실) / 6인실 (거실 + 방 2 + 욕실)

● 부대 시설 : ㄱ강당, 세미나실, 운동장 [이용료 별도 문의]

● 부대 시설 : ㄴ바비큐장, 노래연습실, PC방, 농구장 등 [무료]

● 주변 관광지 ※ 사진출처 : 제천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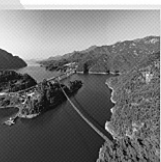
<청풍호반 케이블카>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



<청풍호 유람선>



<옥순봉 출렁다리>

● 청풍유스호스텔 전경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 누리집 바로가기(QR코드) →

